‘사찰음식’, 아동급식 메뉴 선정 추진

하남 상불사, 하남시와 급식레시피 도입 추진

7월 28일 사찰음식 체험 100여 아이들 경험해 눈길 하남시장 “급식 센터 전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하남 상불사서 열린 제 1회 숲속학교 사찰음식 체험행사 모습. 하남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사찰이 이어온 전통음식인 사찰음식이 아동 급식 메뉴로 활용된다. 사찰음식이 지닌 건강 식단으로서의 가치와 내재된 정신문화를 활용한 아이들의 인성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는 7월 28일 상불사에서 ‘경기도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1회 숲속학교 사찰음식 체험 및 시식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숲속학교에 참여한 100여 아이들과 학부모,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한 하남시 관계자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표했다.

무엇보다 지역 최초로 사찰음식 체험 행사를 연데 이어 아동급식까지도 사찰음식 레시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하남시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28일 행사 종료 후 상불사 스님들의 사찰음식 레시피를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상태”라며 “향후 영양사 등 관계자들이 검토해 급식단에 반영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은 “사찰음식은 오랜 기간 쌓인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음식”이라며 “자라는 아이들이 함께 이러한 지혜도 배우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또 육식 중심의 식단에서 채식 중심과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으로 변화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찾은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영유아 급식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이곳에서 사찰음식을 활용해 건강메뉴를 개발하면 시민들 건강도 담보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사찰음식의 활용 범위 확장에 대해 사찰음식 전문가들은 반색을 표하며 과제를 제시했다.

사찰음식 전문가인 적문 스님은 “그동안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와 함께 사찰음식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사찰음식의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급식 분야에서도 사찰음식의 일부 메뉴를 활용해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잡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음식계에서도 급식분야로의 진출은 사찰음식이 단순히 조리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지속적인 개발을 다짐했다.

이심열 동국대 전통사찰음식연구소장도 “사찰음식 속에는 다양한 레시피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급식 레시피 또한 충분히 개발해 낼 수 있다”며 “사찰음식의 과학화에도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실무적인 조리법 보급 외에도 연구와 연구성과 홍보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나랏말싸미’는 옳다”

영화 ‘나랏말싸미’ 역사 논란에 부쳐



특별기고 정찬주 소설가

영화 〈나랏말싸미〉역사왜곡 논란에 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통해 신미 대사의 존재를 알린 정찬주 소설가가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이에 정찬주 작가 기고의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가을 영화 〈나랏말싸미〉 조철현 영화감독이 필자의 산방으로 찾아와 초저녁까지 이야기하고 간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조 감독에게 “한국불교에 빛과 그늘이 있다. 좋은 영화를 만들어 그 그늘을 조금이라도 지워준다면 나는 내 소설 〈천강에 비친 달〉 어느 부분을 뽑아가더라도 허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에 영화가 막상 개봉이 되고 나니 한글창제설의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나는 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왜 집필했는지 그 과정을 회상하면서 내가 파악한 한글창제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밝히고 싶다.

서울의 모 일간지에 〈암자로 가는 길〉을 연재하고 있을 때였다. 속리산 복천암을 취재차 올라갔다가 월성 노스님으로부터 한글 창제의 공이 많다는 신미 대사의 이야기를 난생처음으로 들었다.

몇 년 후 또 그 일간지에 〈선방 가는 길〉을 연재하게 되어 두 번째 복천암을 찾았는데, 그때도 스님은 신미 대사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글창제 비사(秘事)를 말씀하셨다.

마침내 나는 노스님의 절절한 원을 풀어주고자 장편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완성했다.

왕사제도가 사라진 시대에 세종은 신미대사를 왕사로 예우했다. 또 대사를 정음청 학사로 제수했다. 〈연산김씨세보〉에는 신미대사를 학사로 임명하여 집현전 학사들에게 범어의 자음과 모음체계를 설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문종실록〉에도 대사와 정음청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병환 중일 때 놀랍게도 신미대사가 침전에 들어 법문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문종실록〉에도 “선왕(세종)이 신미대사를 존경했다”는 기록이 있고, 세종의 유언에 의해 ‘우국이세 혜각존자(祐國利世 慧覺尊者)’라는 존호를 내린다는 구절이 있다.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했던 실체는 바로 한글창제가 아닐 것인가.

우리들은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창제했다고 학교에서 배운 바 있다. 그러나 한글이 비밀리에 창제될 때까지 집현전 학사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고, 또 창제에 참여할만한 능력이 모자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의 서문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

‘그 깊은 연원과 정밀한 뜻이 묘연하여 신 등은(정음을 창제함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다(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정인지는 또 ‘꼴을 만들되 글자가 옛 전자와 비슷하다(象形而字倣古篆)’라고 모호하게 말했지만 동시대 인물이었던 성현(成俔)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글자체는 범자에 의지해서 만들었다(其字體依梵字爲之)’고 ‘범자기원설(梵字起源說)’을 밝히고 있다.

세종이 재위 25년(1443)에 한글 창제를 전격적으로 공개한 뒤부터 집현전 학사들은 각자 찬반 주장을 했다. 이는 한글 창제가 공개된 이후의 일이었다. 오직 세종과 신미 대사, 그리고 신미 대사에게 귀의한 세자(문종), 수양, 안평, 정의공주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글 창제를 세종과 신미 대사의 애민정신 말고도 유불 갈등 및 왕권과 신권이 대립한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보았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그동안의 한글 창제에 대한 상식을 벗어나 있으니 논란은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다. 다만, 역사적 진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상상력의 예술이 역사적 진실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강단학자들의 연구로 한글 창제의 진실이 보다 깊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조철현 감독의 데뷔작 〈나랏말싸미〉가 용기 있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본다.

‘명상 대중화’ 한국명상총협회 출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초대회장 명상한류 목표


한국명상총협회 대표들이 명상 대중화를 발원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 이하 한명총)는 7월 26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의 전통적인 참선 수행법에 기반을 둔 통섭명상을 바탕으로 명상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도모하기로 결의했다.

한명총은 국내 자생적 명상수행법인 이시형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의 자연명상과 각산 스님의 초기불교 · 간화선 통합수행,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존 카밧진의 MBSR, 인도수상 모디의 멘토인 인도 나겐드라 총장의 VYG 요가명상, 한국피트니스전문가협회 케어건강명상, 13만평 숲속 명상치유가든 로미지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각산 스님은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한류라는 문화현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참선과 국내외 수행법을 아우르는 통섭명상을 통해 새로운 한류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의 실천체계를 확립하고, 지도자 양성 및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회에서는 오는 8월 29~31일 동국대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에 대한 안내와 경북 영주시에 건립 중인 한국명상수련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올 하반기 서울 강남에서 펼쳐지는 한류명상페스티벌에 한명총이 주관하는 명상행사와 해외 우수 명상센터 탐방, 명상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 상향 추진

조계종 종헌특위, 법계 중덕 이상 승려에 부여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당해 교구 재적승에서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는 7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2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다뤘다.

현재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은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정해져 있다. 종헌특위는 회의서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구성원 자격을 준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승가고시를 치르지 않는 스님들이 많아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승랍 10년, 3급 승가고시 합격자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인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법계 대덕(혜덕)’으로 수정하면서 종헌개정안을 함께 준비키로 했다.

만약 중앙종회 본회의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자는 각 교구마다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거권을 갖던 법계 중덕 이하의 교구 재적승의 반발도 예상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에서는 교구본사주지 후보자 자격 중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수정했다. 아울러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은 본사주지 후보자 자격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실장급’으로 변경했으며, 중앙종무기관 국장급은 교구본사 국장급에 맞춰 4년 이상의 재직 경력을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은사 · 도제 · 사형사제 등이 아닌 승려에게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는 창건주 권리를 2회로 늘리는 사찰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대회 : 중흥조 묵담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담양 용화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경애하옵는 전국 불교 대종사 명사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드디어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은 각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전체의 문화재입니다.
금번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여 보고 듣기만 하여도 불교의 근본 뜻을 알게 되고 개인의
소원성취는 물론이고 국운융창 경제부흥 남북통일 세계평화가 꼭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부대중과
불교 신도 외 일반인들도 무루 참석하시기를 기원드려 마지 않습니다.


묵담 올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점안작법 전수자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 수진 합장

시간	발표자 및 주제	비고
09:30 ~ 10:00	식전 행사	불복장 영상 상영
10:00 ~ 10:30	개회사 및 축사	• 수진스님 • 이개호 농수산부장관 • 불복장 작법 보존회 회장, 도지사, 군수
10:30 ~ 10:40	휴식	단상 정리
10:40 ~ 11:10	〈제1발표〉 이중표 – 전남대 • 불복장 작법의 사상적 배경	학술대회 사회 : 최종남(중앙승가대)
11:10 ~ 11:40	〈제2발표〉 이승혜 – 삼성 리움 • 불복장 작법의 발생과 전래	
11:40 ~ 13:00	점심 공양	
13:00 ~ 13:30	〈제3발표〉 남권희 – 경북대 • 담양 용화사 소장 불복장 작법 관련 필사본의 서지적 가치	
13:30 ~ 14:00	〈제4발표〉 수암스님 – 금붕사 • 묵담 대종사의 불복장 작법 중흥과 전승	
14:00 ~ 14:10	휴식	
14:10 ~ 14:40	〈제5발표〉 이종수 – 순천대 • 담양 용화사 도월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4:40 ~ 15:00	종합평가 및 폐회식	종합 평가 : 제주 선광사 주지 수열스님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대회 안내

주최 및 후원
• 주최 : 전남 담양 용화사 신도회(061-381-2683)
• 주관 :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
•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담양군, 문화재청, BTN, 현대불교신문

장소 및 일시
• 장소 : 담양 문화회관 대강당 (담양 시외버스터미널 옆)
• 일시 : 2019년 9월 7일(음력 8월 9일) 토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한국불교태고종 용화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 Tel. 061)381-2683